

# 국제화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순서
1. 커져가는 세계경제속에 숨겨져있는, 농촌진흥정책
2. 물과 공해 문제
3. 관광
4. 가금산업
5. 영구적으로 농촌경제 육성을 위한 식목
6. 수산자원 확보로 농어촌경제 육성
7. 시정되어야 할 교통행정
8. 외화제도 개헌사항
9. 산업화로 갈 수 있는 농군

김 병 식

- 재미동포 (캘리포니아 거주)
- 미국 B & H TRADING CO. 대표
- 한국 은조상사 기술 자문위원

## 2. 물과 공해 문제

내가 본 1960년초 이 나라의 조용한 아침을 자랑하던, 3면인 바다와 심심산골짜기가 풍자한 금수강산이 물과 공기와 자연의 뿌리가 되어 지켜주던 것이, 언젠가 부터 공해의 원천으로 탈바꿈된데는 개인, 기업 및 정부의 잘못된 지침에 인한 것으로 통탄을 금치 못한다.

또한 정책의 이윤추구가 개입되어, 천년은

고사하고 백년지계를 내다 보지 못하는 소인배 정책에 대해서는 외소감을 금할바 없을 뿐더러, 우선 자기만을 위주로 금력과 권력으로 세워진 고급 주택(맨션) 및 공장들의 위치는 샘물의 근원지가 아닌가, 이러한 처사는 이 국민을 조롱하고 이 국민의 안식처 및 관광을 대표할 수 있는 모든 자연을 송두리채 빼앗아 간 꼴이 되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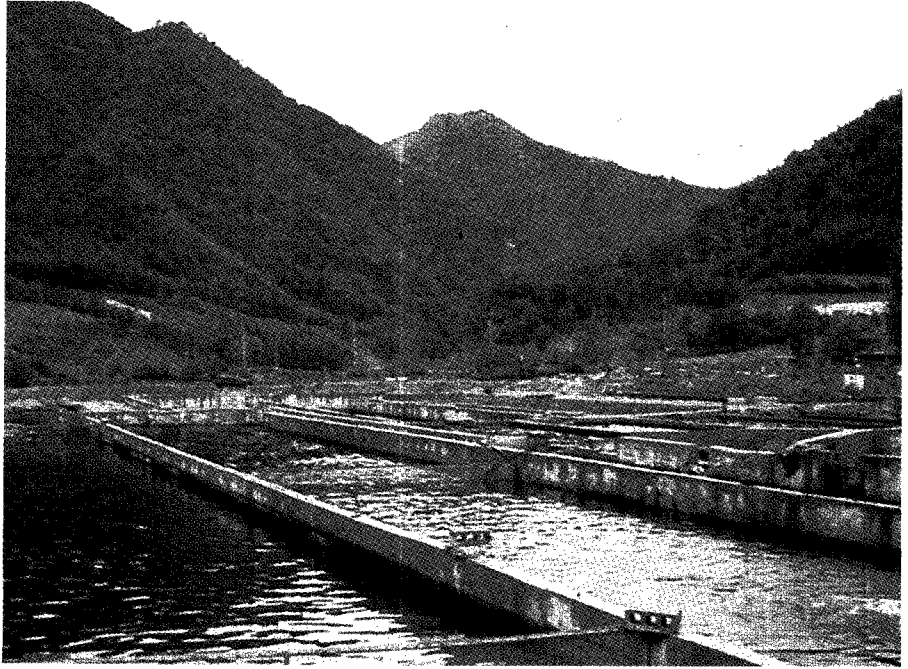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샘물의 근원지인 산천 골짜

기에서 부터 공해의 물이 시작되어서는 하천과 강 그리고 바다가 플라스틱제품으로 쌓인 공해로 어떻게 숨을 쉬고 또한 온 국민의 청수가 될 수 있겠는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도시 변두리에 크고 작은 많은 저수지를 형성해서 도시민들의 안식처 공원으로

이용할 뿐 아니라, 주정부 양어 부화장에서 기른 물고기를 주기적으로 생산하여, 도시민들의 스포츠 및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TROUT(송어)나 BASS를 주식으로 이용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 목적은 비상사태를 대비한 수자원 저수지로서, 진입로 하천 주변은 가옥이나 오락을 위한 어떠한 허가도 용납치 않을 뿐더러, 설상 있다해도 완벽한 정수시설 하에 많은 법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사막위에 형성된 LA같은 거대한 도시는 물 아껴쓰기 운동으로 전기 및 수도료를 올려 물 낭용 방지를 위한 법체제를 강화시켰다. LA 물 공급원은 유타주에서 시작된 JUAN강에서 그랜드캐니언을 통해 콜로라도강까지 연결되면서 그랜드캐니언댐, 후버댐, 데이비스댐, 파커댐을 형성해 전력공급과 포엘, 메드, 하바수 같은 호수는 좋은 수질을 저장한후 L.A의 물공급원



이 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수로를 만들어 광활한 사막지대를 농지로 변경하여 전국의 야채 공급처가 되고 있고 나머지 저질의 물은 멕시코로 유입되어 두 나라간의 물소송은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었다. 다른 하나는 캘리포니아 북부지역 샌프란시스코 상북부에는 많은 비가 오는 지역으로 800km수로를 통해 LA 시내의 피라미드 호수로 저장되면서 LA시에 공급되고 있으나 도시 팽창과 인구증가율로 보아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문제는 우리나라와 별차이가 없다고 본다. 허나 수질관리 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우리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더이상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공장이나, 수질을 파괴하는 요인이 형성되지 않도록 시정함과 정수체제를 강화하여 수질개척을 위한 국민운동이 필요할 때라 생각된다.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저수지를 더 많이 형

성해서 세계적인 관광 스포츠를 위한 뉴시레저 국으로 부상시킴과 동시 농촌자체 경제에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저수지가 되어 삼중사중의 효과와 기대를 가졌으면 한다.

새로운 용수원의 개발문제, 원자로에 의존치 않고 강을 이용한 수력발전을 위한 댐건설 문제, 각지역을 이어주는 수로개발 문제 및 강에 유입되어지는 공해된 부리의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정수처리 문제 등은 정부에서 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도시인들의 피서지를 마련할 수 있는 유원지시설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유원지 시설이 따로이 없는한 강과 바다, 산과들, 그리고 이강산의 하천 어디서든지 공해는 발생할 것이며, 유원지시설로 유원지 시설외의 출입금지를 시행해 나갈때 국민의 준법 정신을 일깨울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환경처의 감시반 기능을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경찰, 산림청, 농수산청 및 일반 국가 공무원까지로 버려지는 공해물 발견시 표창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면 한다.

### 3. 관광

산업수입에 못지 않게 관광수입원 또한 각국의 최대 관심사가 되면서 그나라의 역사를 상징할 수 있는 고고학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문화재 유적관광, 각국에 자연자태를 개발한 명승지 관광, 그리고 SERVICE 관광으로 구분하여 볼때 이 나라가 안고 있는 관광유지체계는 무엇일까 의문이다. 적어도 관광산업 분야만이 아니라 타국에 뒤지지 않는 흑자 대열 국

#### 우리나라의 유적지라면

불국사를 비롯 민속촌, 경복궁이 될 것이며 명승지 관광 코스로 제주도를 비롯 잠목으로 뒤덮힌 천연지형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보나 세계 관광인을 불러 들이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점으로 보아 현재까지의 관광 수입원이 될수 있었던 것은 서비스 분야나,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교포들의 모국 방문 숫자까지 포함된 것이 아닌가 싶다.

가로 임하고 싶다. 그러나 세계화 추세를 거스를 수 없다는 단적인 이유를 쳐들어 외환제로 개방과 더불어 여행자 경비 등 증폭된 외환관리의 정부정책에 어처구니 없는 미소만 보낼 수 없어 인위적 관광 수입원이 될수 있는 것을 의논해 보고 싶다.

내국인의 관광객수가 1993년에 2백41만 명이던 것이 '94년 3백15만명으로 관광객자 폭은 2억3천만 달라가 넘는다고 하니 이번 개혁안의 발효로 그 적자 폭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세계를 향한 우리 관광객들이 해외에서 우리의 무엇을 홍보할 수 있다고 보는가? 아시아 각국의 고고학에 얽힌 역사적 유적을 비롯 중국에 천안문의 고궁, 만리장성, 이화원 등, 미국에 킹스캐년에서 요세미네들 공원까지의 정교한 산림관광코스, 그랜드캐년의 나이아가라

폭포, 넥시드의 아카폴코와 같은 천연 요새의 해변 관광지들은 과히 세계적인 명승지로 손꼽을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남북통일을 이루어 일만이천봉의 정경을 온 세계에 널리 알려 관광수입만으로도 국민이 살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할 뿐이다.

현 한반도 우리나라의 유적지라면 불국사를 비롯 민속촌, 경복궁이 될 것이며 명승지 관광코스로 제주도를 비롯 잡목으로 뒤덮힌 천연지형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보나 세계 관광인을 불러 들이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점으로 보아 현재까지의 관광 수입원이 될수 있었던 것은 서비스 분야나,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교포들의 모국 방문 숫자까지 포함된 것이 아닌가 싶다. 문화재 혹은 자연관광 유치가 없는한, 외국관광객이 다시 한국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관광을 즐기면서 충분한 만족도로 여행하며 쓸수있는 관광 유치 방안으로 3가지의 스포팅 레저 문제를 부연해 보고 싶다.

첫째, 대부분의 골프가 대중 국민운동이 되지 못하고, 부의 상징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점으로 대중 골프문화가 주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관광정책에도 이바지 했으면 한다.

둘째, 국내에서도 이미 제주지역에서 오래전부터 부분적인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쓰이고 있는 사격장 및 꿩사냥을 본격적인 관광사업으로 유도해 보고 싶다. 미국의 경우, 미전역에 꿩 식육자들이 증가됨에 따라 많은 농민들이 부농의 꿈을 안고 그들의 유희농토를 조성해서 각종 메추리 및 꿩 사냥터를 이루어 세계 관광단을 불러 들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세계 사냥인들이 와서 쏘는 꿩의 숫자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광수입원을 생

각할때 우리나라 농민들이 안고 있는 처지가 해외 관광단의 육구충족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농촌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마을 공동체로 꿩 사육장 확보와 그린벨트로 묶인 야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하여 국제홍보가 이루어 진다면 추수가 끝난 가을부터 이른 봄까지의 공백기간, 농촌 인구의 고용 증대는 물론 꿩사육 인구의 증대로 농촌 부농 수입이 관광산업에 종속될 줄 믿는다.

셋째, 미국 유럽 및 중남미인들에게는 스포츠면에서나 식생활의 기호면에서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각광 받고 있는 민물고기 BASS(농어), BLUE GILL 그리고 TROUT(송어)가 우리나라에선 공해의 물고기로 천대 받고 있어 천적으로 명목 되어진 이 BASS로 관광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994년 8월 25일 주간조선지에 수입어종 20년만에 수중생태계 점령이란 주제하에 농어 및 BLUE GILL에 대한 도입경로에서 분포되어진 경유 및 위험적인 존재로 생태계 파괴를 염려하는 기사를 읽게 되었다. 이 무슨 우물안 개구리 같은 우스개 말씀인가? 이 농어는 다양한 인조미끼를 사용해 모든 낚시인들에게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낚시 중의 하나이다.

이 농어는 송어와 달리 춘하추동 많은 산소 없이도 어느 곳에서나 서식하는데 수면위로 튀어 올라 먹이를 찾는 경우도 있고 연못가에 나와 개구리 혹은 메뚜기들을 포획하는 고토 낚시꾼들에게 쉽게 표적이 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주기적인 농어낚시센터가 있어 낚시꾼들에게 자극적인 스포츠 레저 생활을 하게하여 회원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상금 또한 적지 않은 세계 낚시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어 이 방향의 관광유치도 또한 한몫을 한다. 주목할 것은 홍콩, 대만, 일본 등 동남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참여해 그 수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농어낚시에 관련된 상품 판매 광고로 유지되는 스포츠 잡지사 만도 여럿있다.

미국을 비롯 서구 선진국들의 낚시 시장성은 매우 광활하여 우리 중소기업체들이 한때 낚시 도구 등을 수출하여 기존수출 상품으로 자리 굳힘을 하였으나 낚시문화 분야에는 점차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 송어 등과 같은 우수한 질과 특수한 맛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수입어종이 도외시된 상태에서는 세계 스포츠 분야의 수출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서구식 식생활 개혁은 더욱 어려워 지리라 믿는다. 얼마전 어둠을 깨고 작은 송어와 농어로 찌개를 만들었으나 맛이 온통 흙내로 오염된 것 같아 버렸다는 이웃을 만났다.

연어나 송어과는 특수한 토속적 토향을 지닌 고기로서 요리후 레몬즙과 신맛나는 소스로 식사하는 것이 서구식으로 모든 생선은 같은 방법으로 이용된다고 말했다. 주종을 이루는 미국의 낚시 민물고기로는 Stripe Bass, 한국에 분포되어 있는 Large, Mouth Bass, Small Mouth Bass, Troup, Salmdn, Crappie, Pike, Bluegill 및 Channel Catfish 등 다양한 종류로서 한국에 서식하는 가물치, 잉어, 메기, 붕어, 모래무지에 비해 호평을 받을 만한 고단백질을 가진 육질로서 고급어종임을 강조하고 싶은 동시에 이 나라 강줄기에 뿌리 내리

게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또한 우리 고유의 식생활, 우리 고유의 물고기 만이 최고라는 근성으로 국수주의의 낡은 관념을 저 버리지 않는 한 세계를 향해 뛰고 있는 발목은 묶어 놓는 결과 밖에는 되지 않는다.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어식어종의 고기로 만 보지 말고 약육강식이 되어지는 세계의 변화를 이 물고기의 생태계에서 배웠으면 한다. 또한 이 고기로부터 이 나라의 새로운 낚시 혁신을 가져줄 수 있는 재래식 붕어 낚시 관습에서 벗어나 농어를 잡듯이 낚시의 혁신을 맞았으면 한다.

본문으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천대받는 BASS나 BLUREGILL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관광요새 즉 농촌의 호수, 저수지, 낚시터 등을 농민들이 참석케 해서 자본과 노동의 수익을 높여 관광사업에 대처해 나갈때 낚시관광의 홍보가 빛을 볼것으로 본다 외국과 같이 주기적인 비축체제를 체계화 했을 때 영구적인 관광손님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국내 외국인에게 좋은 휴식처로 널리 알려질 것이다.

TROUT(송어)의 경우 늦은 가을부터 봄에 이르기 까지 비축되어지는 것이 외국의 실례로 일인당 5마리씩 한정되어 운영된다. 양계

## 알먹고 힘자랑

## 닭먹고 키자랑